

민주 전당대회 레이스 불 붙었다

‘상수’ 이재명 마감 압박 등록할 듯
97그룹 ‘어대명’ 대세론 깨기 주력
‘친문’ 등 최고위원 선거전도 치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등록 마감일을 앞두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레이스가 더욱 불붙고 있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당 대표 선거 출마가 가장 사실인 상황에서 다른 후보들은 전국을 돌며 부지런히 세를 불려 나가는 모습이다.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이뤄지는 후보 등록을 앞두고 이 고문 측은 출마 여부와 함께 적절한 출마선언 시점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 지난 10일 원내 입성 후 처음으로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을 방문하는 등 이 고문이 점차 보폭을 넓히자 당내에서는 그의 출마를 상수로 점치고 있다. 실제로 출마하게 된다면 후보 등록 마감일인 18일에 맞춰 출마선언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고문 측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여전히 주변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라며 “속도가 필요한 만큼 출마선언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문에 맞서 일찌감치 출마표를 낸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4인방은 ‘이재명 대세론’을 깨기 위해 국민·당원과의 스킨십을 늘려가며 밑바닥 표심을 다지는 중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고향인 전북으로 향해 김관영 전북지사를 만나는 데 이어 청년들과의 호프미팅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강훈식 의원이 지난주 출마 선언 후 고향인 대전·충남을 돌면서 민주당 창당 원로를 찾는 등 민심을 청취했다. 당권 주자를 내지 못한 친문(친문재인)계 표심을 상대적으로 많이 흡수할 것으로 보이는 강병원 의원은 전남 광주·전남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만난다. 정 전 총리가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고문과 각을 세웠던 데다 정세균계가 범친문계로 분류되는 만큼 비명(비이재명)계 표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또 다른 범친문계인 이낙연계의 설훈 의원도 조만간 출마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최고위원 선거전에서도 친문계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전날까지 3선 정청래·서영교 의원과 초선 장

경태 의원이 출마선언을 한 가운데 이날 오전에는 친명(친이재명) 성향이자 강경파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의 양이원영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처럼회 소속인 이수진(동작을) 의원과 친명계 재선인 박찬대 의원의 출마도 점쳐지는 등 현재까지는 친명계 의원들의 최고위원 도전이 활발한 추세다. 이에 맞서는 친문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이 꺾혔으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인 윤영찬 의원이 주변의 권유로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이 금명간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윤 의원도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할 경우 친문계의 표심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민생외면 규탄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 민생외면 규탄!’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힘 중진모임, 당대표 ‘직대체제’ 결론

권성동 “의견 모아졌다”
안철수 “‘사고’ 규정 동의”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11일 이준석 대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결정에 따른 차기 지도부 체제 문제와 관련,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제제로 당을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1시간20분가량 회의를 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회견과 만나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회견과 만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향후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결론은 당헌당규를 엄격하게(해석)해서 당원권 정지를 당 대표의 ‘사고’로 봐서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당이 좀 더 철저부심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당대표 직무대행을 겸하는 권 원내대표가 소집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국무위원인 의원들을 제외하고 참석 대상자 28명 가운데 22명이 자리했다. 반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과 차기 당권 도전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우택 윤상현 의원, 김학용 권은희 김도읍 의원 등 6명은 불참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 전환 없이 6개월간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게 6개월이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당 대표가 권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 전당대회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그래서 임시전대나 비대위 요건이 없기 때문에 당헌당규

대로 가는 게 맞고, 그래서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며 “그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 거취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한두분이 거취에 대한 말씀이 계셨지만, 대다수는 어쨌든 윤리위 결정을 수용하자는 말씀이었다”며 “윤리위 징계에 대한 부담함에 대한 말씀은 없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윤리위 결정을 수용하는 게 맞다는 게 전원의 의견이었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이 사태를 조기 수습할지, 집권여당이 보다 안정적인 집권체제를 가져가는 게 국민에 대한 의무이고, 그런 관점에서 다양한 얘기를 나눴다”며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엄격한 해석 하에서는 지금 ‘사고’로 보는 게 맞다는 게 현재 당 사무처 입장이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 정부 첫 검찰총장 추천위 구성

19일까지 후보 국민 천거
김오수 퇴임 후 65일만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전임 총장 퇴임 후 두 달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을 마치고, 12일부터 19일까지 국민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추천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김진태 전 총장이 맡았다. 당연직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김 전 총장 외에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위촉됐다. 검찰총장은 국민 천거와 추천위 추천, 법무부 장관의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다. 법무부 장관은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제

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으로 제시한다. 천거 명단에 없는 인물도 제시할 수 있다. 이후 추천위는 적격 여부를 심사해 법무부 장관에게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장관은 이를 존중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법무부는 전임 김오수 검찰총장 퇴임 후 65일 만에 추천위를 구성했다. 2011년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제도가 도입된 후 구성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향후 인사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총장 후보군으로 여러 인물이 거론된다. 현직 검사로는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근(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 차장검사가 후보군으로 물망에 올라 있다. 검찰을 떠난 이들 중에서는 한찬식(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배성범(23기)·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거론된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

청문회 없이 네 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출부를 국회에 요청했으나, 기한(8일)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자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 새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이어 네 번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민생 경제를 위해 쟁겨야 할 현안이 많아 더이상 자리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명안 재가를 예고했다. /연합뉴스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알로에, 대두이소플라본

건강기능식품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